

#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최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은 《유신군부독재시기 반유신, 반독재투쟁을 하던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고 떠벌인데 이어 조국통일법민족혁명헌장 해의본부 그리고 조국통일법민족혁명헌장 해의본부를 비롯한 9개 단체를 《국군의 적》으로 규정해 《종북세력적분해추진안》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들에 배포하였으며 《종북단체》들이 조신반도의 《최후를 추기》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보안법》폐지, 헌법재판소 등 《북의 로선에 추종》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국단적인 동족대결의식은 전쟁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장교와 사병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 헌신하고있는 부모형제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도록 《정신교육》을 내리먹이는 것은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하는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사태는 32년전 땅크와 장갑차, 직승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판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류현참군이 또 다시 재현될수 있다는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또한 나서자란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한 인간 쓰레기들이 배라를 살포하겠다고 망동을 부려 립진각일대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대결의식이 팔수에까지 배이고 동족의 피에 굶주린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미친짓이 아닐수 없다.

남측집권세력들은 편일 그 무슨 《북방한계선》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어떻게든 조선서해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로골적인 전쟁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국방장관은 제

44차 년례안보협의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것》이라고 하면서 《서해 5개 섬 및 북방한계선일대에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망발하였다.

미군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북방한계선》을 감히 해상경계선이라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부정보고도 판독한 위반이라는데 대해 누구보다도 침략적인 남조선미국동맹의 장본인들이 더 잘 알고있을것이다.

남측의 집권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은 침략무력과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1년내내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조선반도뿐아니라 남는 나라에까지 나가서 벌려놓고 있으며 전범세력인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군사협정체제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대우기 최근에는 특히공군과 해병대, 경찰, 예비군 등 방대한 병력과 미군부력까지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호국》훈련을 벌려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

남측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동족대결과 침예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들이어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장교와 사병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 헌신하고있는 부모형제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도록 《정신교육》을 내리먹이는 것은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하는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사태는 32년전 땅크와 장갑차, 직승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판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류현참군이 또 다시 재현될수 있다는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또한 나서자란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한 인간 쓰레기들이 배라를 살포하겠다고 망동을 부려 립진각일대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대결의식이 팔수에까지 배이고 동족의 피에 굶주린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미친짓이 아닐수 없다.

남측집권세력들은 편일 그 무슨 《북방한계선》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어떻게든 조선서해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로골적인 전쟁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국방장관은 제

44차 년례안보협의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것》이라고 하면서 《서해 5개 섬 및 북방한계선일대에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망발하였다.

미군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북방한계선》을 감히 해상경계선이라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부정보고도 판독한 위반이라는데 대해 누구보다도 침략적인 남조선미국동맹의 장본인들이 더 잘 알고있을것이다.

남측의 집권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은 침략무력과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1년내내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조선반도뿐아니라 남는 나라에까지 나가서 벌려놓고 있으며 전범세력인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군사협정체제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대우기 최근에는 특히공군과 해병대, 경찰, 예비군 등 방대한 병력과 미군부력까지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호국》훈련을 벌려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

남측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동족대결과 침예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들이어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지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정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 서 우리 겨레가 견지하여 할 지도적지침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본체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해내외의 동포들여!

6.15통일시대 차고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에 국의 열풍을 일으켜나가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각계층의 배양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지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정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 서 우리 겨레가 견지하여 할 지도적지침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본체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해내외의 동포들여!

6.15통일시대 차고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에 국의 열풍을 일으켜나가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각계층의 배양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법민족혁명 헌장 해의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

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회적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대결방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반통일무리의 배라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국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리명박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적결》소동을 전쟁책동을 단



# 영구강점기도의 산물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가 조작된 때로부터 34년이 되어온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영구장악을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조작되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1975년에 진행된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을 해체하고 《유엔군》의 기발아래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25년간을 틀고있던 미국은 남조선강점의 《합법》적기질을 더는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엔군》의 간판을 도용하여 미군이 남조선군에 대해 행사해오던 작전지휘권도 상실할수 있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통수권장악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78년 11월 7일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를 서둘러 조작한것이다.

이로써 미군은 낡아빠진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그대로 타고있었으며 《연합군》이라는 교묘한 형태로 남조선군의 지휘권을 계속 휘둘렀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조작된 첫날부터 조선훈에서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침략전쟁기구로 되어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을 공화국과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전략상으 총지대로 주목하고 핵전초기 지화하였으며 여기에 수만명의 미군을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다. 이른바 《연합군》의 창설과 작전지휘권의 장악은 이러한 교두보를 영원히 장악하며 침략전쟁수행수 남조선군을 미군의 대포함으로써, 돌격대로 썩먹으려는 책동의 산물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영연히 틀어쥐기 위해 조선훈에서 분령정책을 고집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무력도구로 리용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통일의 함성이 높이 울려나올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설을 내들리며 《연합군사령부》를 내세워 대결을 고취하는 전쟁연습을 대적으로 벌인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침략기구, 반통일기구는 침략군의 철수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로 보나 조선훈에서의 평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이미전에 해체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남조선과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대세의 흐름에 계속 역행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미국에서 제44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을 벌여놓고 공

공이한 내용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미국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할 지휘협조기구를 새로 내오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방안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신원합방위체추진단》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성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남조선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후 전시작전지휘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남조선강점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것을 뒤집는것이나 다를바 없다. 결국 2015년에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내용이 남조선인민들의 드세찬 반미감정을 녹

잡히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를 통하여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후에도 남조선에 틀고있던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미국의 흥심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울러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으로 《체제통일》을 이루어버려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어리석은 잔꾀도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현실은 사대매국에 환장한 매국세력들이 남조선에서 집권하고 조선훈과와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국이 남조선군을 감청하고있는 한 평화와 통일을 부정하고 전쟁과 분열만을 고취하는 제2, 3의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가 계속 조작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시기자 김응철

10월 26일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비참하게 운명 한 날이다.

그때로부터 3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이날을 기억하고있는것은 독재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반드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만한다는 력사의 교훈을 새겨주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날을 《유신》독재자를 미화하고 동족대결을 선동하는 불순한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이 아직도 남조선에 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에서 《박정희추도식》이라는것을 벌여놓은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동족대결의식이 팔수에 딱 찬 이들은 《추도사》라는데서 《유신》독재자를 미화분식하고 추어올리다 못해 북남공동선언들을 《말살추방시켜야 한다》는 망발까지 마구 내뱉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살수 없는 모독이고 북남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추악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유신》독재자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세상에 다시 없을 수많은 파쇼적악행을 저질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8년간에 걸친 박정희통치기간 남조선은 지구상에 돌도 없는 외세의 군사, 경제적식민지, 북침전쟁의 전초기지로 화해갔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극단한 경제적빈궁과 고통속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력사를 그 룰레를 찾아볼수 없는 회색의 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인민들을 무참히 투옥, 학살한 《유신》독재자의 죄악은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유신》독재시기를 끄찍한 《악몽의 시대》,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악의 제국》으로 자주, 규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때문에 제대로 되자면 이날에 민족앞에

저지른 《유신》독재자의 죄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앞에 사죄하는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무슨 《추도식》이라는것을 벌리고 파쇼와 동족대결로 악몽을 떨친 《유신》독재자를 미화분식하는 말발들을 늘어놓았으니 이 얼마나 분개할 현실인가.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말살추방》이 이뤄지니 하며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모독하고 북남대결을 선동하는 잡소리들을 늘어놓은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천명하고 그 실현의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의 대강이고 실천강령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어 이 땅에는 대결과 불신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새 력사가 시작될수 있었으며 민족의 통일전망은 밝은 래일을 기약할수 있게 되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말살》이니 《추방》이니 떠들었으니 이것이 그대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반민족적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추도식》이라는것이 《새누리당》을 위시한 극우보수세력이 주도하고 《새누리당대선》 후보의 참가하에 벌어진것이다.

사실들은 오늘 《새누리당》이야말로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대하고 력사의 심판을 받은 《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되살리려는 매국반역집단이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제 명을 다 살고 시대밖으로 밀려나 극우보수세력의 단 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집권이 곧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회귀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대선》을 거어 이 땅에서 《유신》잔당세력을 깨끗이 청산해버리는 돌도 없는 기회로 만들것이다.

박철남

## 《유신》부활을 노린 《추도사》

최근 남조선에서 18대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미국의 움직임이 부산스러워지고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에 날아든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남조선당국자들과 《대선》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대북정책》과 대내외정책에 대한 《사상검증작업》을 로골적으로 벌리었다.

이에 앞서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도 남조선을 행차하여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관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핵문제, 북남대화재문제, 북남경제협력문제 등에 대한 립장을 료해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긋나는 외교안보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강압해나섰다.

남조선에 기여든 전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힘도 한 야당후보를 만나 그의 《대북》 및 대미정책립장을 라진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까지 하였다.

한편 미국은 《월 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언론들과 주요정책연구기관들을 내세워 《아전후보》(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 미동맹은 어색해질것》이라느니, 《차기 《정부》는 원칙에 립각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느니, 《대북문제때문에 《한》 미동맹에 균열이 가

게 해서안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부추기고 민주개혁세력을 압박하는 비렬한 놀음도 벌리었고있다.

남조선의 《대선》에 개입하여 친미보수 《정권》을 지속시켜보려는 미국의 속심이 드러나고있는것이다.

력대적으로 미국이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선거》때마다 친미보수 《정권》조작에 광분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단독선거》로 만들어낸 리승

계개선과 긴장완화를 표방해나서고 있다.

이것은 반공화국압살과 남조선에서의 친미보수 《정권》의 연장을 노린 미국을 당황당초케 하고있다.

이후 불안한 친미 미국은 사전에 각 후보들에게 침을 놓아 저들이 없으면 남조선의 앞날도, 존재도 없다는 이른바 미국의 힘과 권위를 골수에 심어줌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정책에 엇서나가지 못하게 하려고하고있다.

결국 미국의 《선거》게임에는 남

누구의 《선거》게임은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북풍》조작소동에 떠안이 되고있다.

또한은 겨례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다음기 《정부》에서 논의하게 되어있던 《미싸일지침》개정문제, 방위비분담금문제, 미싸일방위체계가담문제 등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남조선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절대적인 식민지로 더욱 전락시키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미국의 로골적이며 횡포무도한 《선거》게임에는 구차스럽게 매달리면서도 있지도 않는 《북의 《선거》 게임》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쓸개빠진 사대매국노, 동족대결분자들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친미보수집단의 재집권을 위한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이 날이 갈수록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친미보수는 매국의 길,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새겨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철의 진리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하려는 미국의 《선거》게임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이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김철호

《선거》게임에 대한 운운하는것은 쓸개빠진 사대매국노, 동족대결분자들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친미보수집단의 재집권을 위한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이 날이 갈수록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친미보수는 매국의 길,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새겨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철의 진리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하려는 미국의 《선거》게임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이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김철호

《추도사》라는데서 《유신》독재자를 미화분식하고 추어올리다 못해 북남공동선언들을 《말살추방시켜야 한다》는 망발까지 마구 내뱉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살수 없는 모독이고 북남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추악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유신》독재자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세상에 다시 없을 수많은 파쇼적악행을 저질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8년간에 걸친 박정희통치기간 남조선은 지구상에 돌도 없는 외세의 군사, 경제적식민지, 북침전쟁의 전초기지로 화해갔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극단한 경제적빈궁과 고통속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력사를 그 룰레를 찾아볼수 없는 회색의 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인민들을 무참히 투옥, 학살한 《유신》독재자의 죄악은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유신》독재시기를 끄찍한 《악몽의 시대》,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악의 제국》으로 자주, 규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때문에 제대로 되자면 이날에 민족앞에

저지른 《유신》독재자의 죄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앞에 사죄하는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무슨 《추도식》이라는것을 벌리고 파쇼와 동족대결로 악몽을 떨친 《유신》독재자를 미화분식하는 말발들을 늘어놓았으니 이 얼마나 분개할 현실인가.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말살추방》이 이뤄지니 하며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모독하고 북남대결을 선동하는 잡소리들을 늘어놓은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천명하고 그 실현의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의 대강이고 실천강령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어 이 땅에는 대결과 불신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새 력사가 시작될수 있었으며 민족의 통일전망은 밝은 래일을 기약할수 있게 되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말살》이니 《추방》이니 떠들었으니 이것이 그대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반민족적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추도식》이라는것이 《새누리당》을 위시한 극우보수세력이 주도하고 《새누리당대선》 후보의 참가하에 벌어진것이다.

사실들은 오늘 《새누리당》이야말로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대하고 력사의 심판을 받은 《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되살리려는 매국반역집단이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제 명을 다 살고 시대밖으로 밀려나 극우보수세력의 단 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집권이 곧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회귀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대선》을 거어 이 땅에서 《유신》잔당세력을 깨끗이 청산해버리는 돌도 없는 기회로 만들것이다.

박철남

## 《선거》게임의 장본인은 미국

《정권》이나 《5.16쿠데타》의 산물인 《유신정권》, 《5공》과 《6공》, 《문민정권》과 현 《실용정부》 등 남조선의 친미독재 《정권》치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종없이 생겨났다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와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보수본색을 감추려 하고있지만 과거사부정과 《정수장화회》문제, 극우보수세력규합책등과 대결적인 《대북정책》 등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다.

그러나하면 이번 《대선》에 뛰어들 후보들은 여야 할것없이 북남판

《정권》이나 《5.16쿠데타》의 산물인 《유신정권》, 《5공》과 《6공》, 《문민정권》과 현 《실용정부》 등 남조선의 친미독재 《정권》치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종없이 생겨났다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와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보수본색을 감추려 하고있지만 과거사부정과 《정수장화회》문제, 극우보수세력규합책등과 대결적인 《대북정책》 등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다.

그러나하면 이번 《대선》에 뛰어들 후보들은 여야 할것없이 북남판

《정권》이나 《5.16쿠데타》의 산물인 《유신정권》, 《5공》과 《6공》, 《문민정권》과 현 《실용정부》 등 남조선의 친미독재 《정권》치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종없이 생겨났다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와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보수본색을 감추려 하고있지만 과거사부정과 《정수장화회》문제, 극우보수세력규합책등과 대결적인 《대북정책》 등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다.

그러나하면 이번 《대선》에 뛰어들 후보들은 여야 할것없이 북남판

《정권》이나 《5.16쿠데타》의 산물인 《유신정권》, 《5공》과 《6공》, 《문민정권》과 현 《실용정부》 등 남조선의 친미독재 《정권》치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종없이 생겨났다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와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보수본색을 감추려 하고있지만 과거사부정과 《정수장화회》문제, 극우보수세력규합책등과 대결적인 《대북정책》 등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다.

그러나하면 이번 《대선》에 뛰어들 후보들은 여야 할것없이 북남판

《정권》이나 《5.16쿠데타》의 산물인 《유신정권》, 《5공》과 《6공》, 《문민정권》과 현 《실용정부》 등 남조선의 친미독재 《정권》치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종없이 생겨났다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와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보수본색을 감추려 하고있지만 과거사부정과 《정수장화회》문제, 극우보수세력규합책등과 대결적인 《대북정책》 등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다.

그러나하면 이번 《대선》에 뛰어들 후보들은 여야 할것없이 북남판

## 《차떼기당》의 《선거감시》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그 무슨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것을 꾸려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리유인즉 야당후보측에서 알게모르게 많은 부정 《선거》를 하고있다는것이다.

역시 낮가죽이 폭발물보다 더 두려운 《새누리당》의 행동이라 하겠다.

《새누리당》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 《선거》를 하며 소란을 피운 부패당이다. 금권, 판권 등 모든것을 다 동원해 부정 《선거》를 하므로 《2락당》(2억원으로 《공천》을 못받고 3억원을 내면 《공천》 받는다는 뜻)이란 말도 생겨났다. 2002년 《대선》 때에는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새누리당》이다.

제 비롯 개 못준다고 《새누리당》의 악습은 지난 4월의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그 무슨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것을 꾸려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리유인즉 야당후보측에서 알게모르게 많은 부정 《선거》를 하고있다는것이다.

역시 낮가죽이 폭발물보다 더 두려운 《새누리당》의 행동이라 하겠다.

《새누리당》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 《선거》를 하며 소란을 피운 부패당이다. 금권, 판권 등 모든것을 다 동원해 부정 《선거》를 하므로 《2락당》(2억원으로 《공천》을 못받고 3억원을 내면 《공천》 받는다는 뜻)이란 말도 생겨났다. 2002년 《대선》 때에는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새누리당》이다.

제 비롯 개 못준다고 《새누리당》의 악습은 지난 4월의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그 무슨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것을 꾸려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리유인즉 야당후보측에서 알게모르게 많은 부정 《선거》를 하고있다는것이다.

역시 낮가죽이 폭발물보다 더 두려운 《새누리당》의 행동이라 하겠다.

《새누리당》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 《선거》를 하며 소란을 피운 부패당이다. 금권, 판권 등 모든것을 다 동원해 부정 《선거》를 하므로 《2락당》(2억원으로 《공천》을 못받고 3억원을 내면 《공천》 받는다는 뜻)이란 말도 생겨났다. 2002년 《대선》 때에는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새누리당》이다.

제 비롯 개 못준다고 《새누리당》의 악습은 지난 4월의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 악법철폐를 절규하는 인민들

지난 10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는 남조선의 악명 높은 《보안법》에 대해 또다시 제지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계는 《《보안법》이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반인륜적악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물매를 맞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 의로운 어머니들

그들중에는 80이 퍼 넘은 민가협 초대회장 립기판도 있었다. 최전향장기수선생들은 《림기판선생이 《갑호소》 철창을 두드리며 장기수들을 석방시키라고 외칠 때면 경찰찰들도 범접하기 힘들어했다.》고 지금도 기억한다.

1970년대 당국과 업주의 로동자억압에 항거하여 분신자결한 청계천평화시장

서울시 종로구 탐포공원에 서는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주최로 목요일집회가 열렸다.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석방을 웨치며 1993년 9월에 시작한 목요일집회가 900차 되는 날이었다. 한겨레의 추위도, 한여름의 폭박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마철 비바람도 이겨내며 꿋꿋이 목요일집회를 진행한 이들이다.

로동자 전래일의 어머니인 리도선은 40여년동안 《로동자의 어머니》, 《민주화운동에 나선 모든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존경을 받아왔다. 인민혁명당사건관련자 8명이 사형당했을 때는 량구차를 가로막고 길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투쟁을 벌린 장한 어머니. 이 날에 3번이나 감옥에 끌려가면서 도 그는 의로운 활동을 멈추

지 않았다.

이날 6월항쟁의 기록제가 되었던 리한렬렬사의 어머니 인 배은심은 《아버지가 보고싶어요》라는 손때갈을 보며 《지금 감옥에 남편이 나 자식, 부모를 보낸 사람들 가슴은 자식을 산에 묻고 늘 산속을 헤매는 우리들과 같은 심정일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보안법》은 60여년이 다 가도록 사라질줄 모르고있다.》고 하였다.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900차모임에 참가한 한 인사는 MB 《정권》은 정말 정글정글한 《정권》이다. 10년전 나는 어머니들의 투쟁에 힘입어 출소한 다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적이 있다. 《보안법》이 철폐되고 량심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

량심수후회회 권오현 명예회장은 민가협 목요일집회 400차 때 《보안법》위헌형의로 감옥살이를 한 민주인사가 900차가 갈려있는 오늘에도 감옥에 갇혀있으며 리명박 《정부》의 반인륜, 반인륜적행위를 규탄했다.

한 인사는 《박물판에 가 있어야 할 《보안법》이 리명박 《정권》에서 서술이 퍼렇게 살아 자주통일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있다. 리명박 《정부》를 보면 무소불위의 《유신》독재를 보는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가협은 《특히 리명박 《정부》 이후 단 한명의 량심수도 사면, 석방되지 않았고 사문화되었던 《보안법》이 다시 략집을 열여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있는데 안락아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보안법》은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과 량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어온 가장 반민주적인 악법이다.》고 결의문에서 지적하였다.

민가협 조준덕상임의장은 《민가협은 《보안법》이 철폐되고 량심수가 단 한사람도 없는 그날, 조국이 자주화되고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9년동안 한번도 건지지 않고 어김없이 진행된 목요일집회, 단일주제로 이처럼 오랜 나날 시위를 벌린 일은 세계사에 류례가 없는 일, 남조선인민들이 바친 피와 땀과 눈물이 그대 아직 모자란단 말인가.

《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본시기자 박단희

## 집권 40년 동안 여성을 너무도 억눌러

얼마전 《새누리당》이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 《새누리당》의 뿌리 《유신》독재의 죄악상을 파헤친다 (5) 외세의 하청경제로 민생을 파탄시킨 장본인

지금 남조선에서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한 인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다.

가관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요란스레 광고하며 이것을 바로잡을것처럼 늘어대고있는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강의 기적》이니, 《고도성장》이니 하며 《유신》독재시기를 찬미해나서고있다. 경제, 민생문제에 쏠린 사람들의 심리에 《박정희환수》를 뿌려 권력을 다시 쥐여보려는 《새누리당》의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남조선경제가 안고있는 심각한 대외예속성과 재벌경제구조, 빈부격차는 어느것 할것없이 다 《유신》독재자가 그 씨앗을 뿌리고 자배운것이다.

미국의 조종밑에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록 《유신》독재자는 《산언의 근대화》니, 《경제개발》이니 하는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외국자본을 무한정 끌어들이며 경제의 예속화를 심화시켰다.

《유신》독재자는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법》, 《외자도입법》을 비롯한 《법》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녀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 사회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오랜 정치활동과정에서 녀성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활동해온것이 있는 《《새누리당》 집권 40년동안 녀성정책도 제대로 함께 없고 녀성을



# 평화적 건설의 앞장에 군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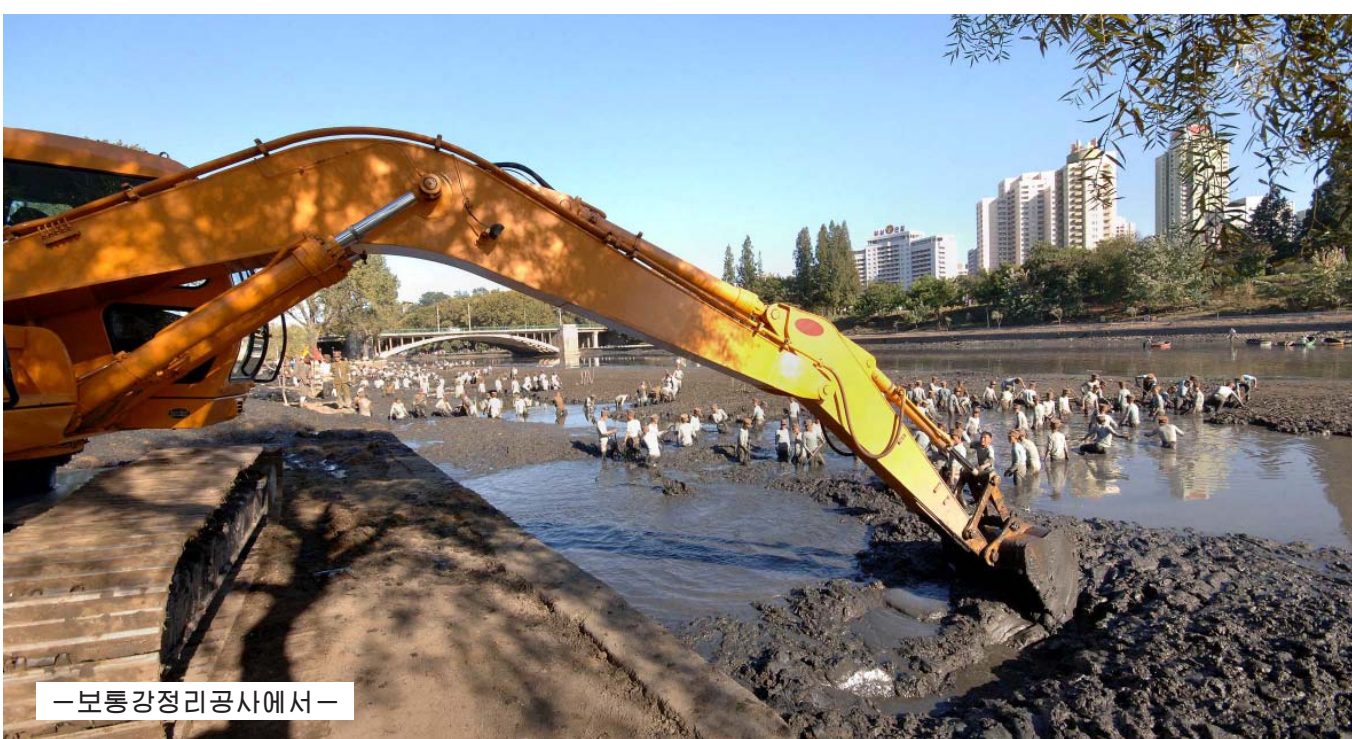
요즘 각지 인민들속에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그칠새 없다. 그도 그럴것이 인민군대의 손길이 한번 가닿는 곳이면 순간에 허허벌판이 만년대개의 창조물로 뒤바뀌고 큰 거리도 척척 일떠서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있는 보통강정리공사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78만여㎡의 감랑파기와 9만여㎡의 지대정리, 7 500㎡에 달하는 면적에 잔디심기, 3만 2 270㎡에 달하는 옹벽보수 및 세척작업, 공사구간에 위치한 다리들의 란간보수와 도색작업 등 방대한 량의 보통강정리공사는 몇달을 두고도 못다 할 방대한 량이었다. 하지만 영용한 인민군인들은 보통강을 정리할때 대한 명령을 받들고 현장에 달려나와 불과 9일이라는 짧은 시일내에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합창강정리공사에서도 인민군인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공사장에 달려나온 인민군인들은 28만여㎡의 감랑을 파내고 수문, 옹벽, 다리들을 보수하였으며 수십만㎡에 달하는 지대정리를 불과 7일동안에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기계수단들을 들이밀면 유보도가 파괴된다고 하면서 허러치는 물속에 들어가 감랑을 파낸 군인들이었다. 하루밤사이에만도 여러개의 가설다리들을 설치하고 장평들과 군관들, 병사들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군대가 제일이다》, 《몇달을 걸려도 못한다의 공사도 군대가 맡으면 단 며칠만에 끝낸다》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각지에서는 창조와 건설에 동원된 군대의 모습을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다.

인민들이 즐겨찾는 유희시설들과 고품등어판, 물놀이



—보통강정리공사에서—

장, 미니골프장으로 이루어진 룡라인민유원지도 인민군대가 달려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와다닥 일떠세운것이 고 개진보수된 만경대와 대성산의 유희장들, 새로 건설된 인민야외빙상장과 류정원도 인민군인들의 구슬땀으로 세워진것이다.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튼 평양 한복판의 창조전거와 현대적인 인민극장은 또 누가 건설하였던가. 인민군대였다.

대성산기술의 느릅은 부지에 반만년의 력사를 한쪽의 그림처럼 방불히 펼쳐보인 평양민속공원의 시공주도 역할 나눈 짜음군들로 소문난 인민군부대의 군인들이었다. 10년은 걸려야 한다던 최전 발전소건설을 3년동안에 해제진 최전속도의 창조자들도 다름아닌 군인들이다.

얼마전에 준공식을 한 평양산림 유선중앙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역시 군인들이 건설하였다. 지금 인민군인들의 손에 의해 날마다 달라지고있는 평양시대 공원, 유원지들의 모습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텁게 해주고있다.

실로 이 땅의 수많은 창조물들은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가꾸어주는 인민군대의 애민의 손길이 뜨겁게 어러여있지 않은것이 없다.

격언에 군대는 천날 길러 하루 쓴다는 말도 있듯이 예로부터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된 상비군 무력집단으로 알려져왔다.

그 어느 나라나 군대는 총을 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총을 떠난 군대, 전쟁과 관련없는 군대란 지금도 생각할수 없다. 군대는 력대로 총을 쥐고 참호에 있었고 전장을 활동무대로 하여왔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군대가 총을 쏜 그 손에 삽과 곡괭이, 합마 등을 쥐고 평화적건설을 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것은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세상의 다른 군대와는 구별되는 인민군대의 모습이다.

공화국에서 펼쳐지고있는 선군정치도 인민군대가 창조하고 지키고 인민의 부를 창조하는 평화적건설도 앞장서 해나가게 하는 애민의 정치, 평화수호의 정치이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마련한

태에 있다. 그 긴장격화의 주범은 반공화국적대시압착행동에 매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지도 않는 북의 《도발》이니, 《미싸일위협》이니를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외곡이다. 군대가 전쟁준비를 한다던 평화적건설을 할 필요가 하등에 없다. 전쟁은 삼시에 모든것을 재더미로 만들어버리기때문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군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달과 해를 이어 평화적건설을 하고있고 인민들의 행복을 날마다 창조해가고있다.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평화가 아무리 소중한데 자기의 존엄과 제도를 조곰이라도 건드리려는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깃뎛개는것이 또한 인민군대의 기질로 되고있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서 지금 이 시각에도 평화적건설의 맨앞장에 서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 서해의 최전연습마을 학생들 평양 견학

위대한 선군명장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전설로 꽃피어나고 있는 조국땅위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지난 8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심방어대들을 찾으시여 인민군장병들과 군인가족들에게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서마을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날로 커만 가는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10월 21일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도착한 서마을학생들의 기쁨과 환희는 하늘에 닿았다.

그들은 먼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 수님과 김정일대원 수님의 동상을 찾았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며 그들은 몸은 비록 외진 서마을에 있어도 절세위인들의 따사로

운 사랑과 은정속에 무럭무럭 자라며 행복을 누려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견학의 나날 그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대성산혁명렬사릉, 3대혁명전시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조전거의 살림집 등을 참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참관한 그들은 전하의 영웅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삶의 요람이고 행복의 터전인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앞날의 희망을 무르익혔다.

서마을학생들에게 배우신 절세위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격속에 접한 수도 시민들과 일군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해주었다.

학생들은 개성청년공원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중앙동물원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룡라곶등어관에서 최환한 구경도 하였으며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수도의 이름난 식당들에서 푸짐한 식사도 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친부모도 주지 못한 대해같은 사

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그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동행의 공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학생들은 지은글발표모임과 예술소품발표회 등을 가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을 한껏 터치며 태양을 우렁하는 총대병사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자기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참으로 서해의 최전연습마을학생들이 조선로동당의 은혜로운 손길에 받들려 즐겁게 보낸 평양견학의 나날은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 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날의 선군조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맹세를 다지었다.

10월 30일 서해의 최전연습마을학생들은 평양견학의 즐거웠던 나날들을 가슴에 안고 만경대수려려행담사육영소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환송속에 평양을 출발하였다.

본사기자



서해의 최전연습마을 학생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 민족의 우수성 조선치마저고리에 담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에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선옷창작가가 있다. 그는 대신동 38인민반에 사는 김봉화(57살)녀성이다. 비록 조선옷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가시간에 짤짤이 익히고 습득한 그의 남다른 조선옷제작기술은 전문가들도 감탄하고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전국조선옷전시회에 참가해온 김봉화녀성은 얼마전에 있는 제10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 녀성들의 명절옷을 내놓았다. 치마저고리에, 합박꽃 등 유명한 꽃들을 그려넣은 화려한 명절옷은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로 하여 심사위원들은 물론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 가정을 이루는 녀성들의 결혼식옷과 로인들의 환갑옷, 명절옷과 일상옷 등 조선옷을 주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김봉화녀성은 가을철결절에 맞게 도라지꽃, 들국화 와 같은 정신한 느낌을 주는 색이나 감색, 단풍색과 같은 풍만한 색을 택하여 사람들의 몸매와 기호에 꼭 맞게 조선옷을 만들어준다.

특히 조선옷의 고전설계에

기초하여 깃, 쇠, 고름, 소매 배례기부분을 잘 조화시켜 우아함을 더욱 돋우어준 저고리며 부채살처럼 퍼져나간 풍만한 치마, 결혼식옷은 조상전래의 풍습을 잘 살리고있어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그의 특기는 깃가지 무늬를 독특하게 그려넣어 조선옷의 우아함을 한껏 돋우고 있는것이다. 그가 그린 국화, 모란 등 꽃무늬들과 넝쿨무늬, 나무잎무늬, 참대 등의 식물무늬와 동물무늬 그리고 자연을 형상한 무늬들의 주제내용은 풍부하고 섬세한것으로 유명하다.

원래 김봉화녀성의 전공은 미술이었다. 13살때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일찌기 의사미술, 상업미술과 같은 산업미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금 그의 집벽면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가 창작한 어느 한 상표도안을 뽐소 보이주시고 제일 잘된 상표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사랑의 친필이 보져져있다.

그런 그가 조선옷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어느해인가 김봉화녀성은 조선치마저고리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

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게 되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세계에 둘도 없는 고상한 민족속이 라고고, 조선녀성들의 치마저고리는 정말 우아하고 보기 좋다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녀성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우어주며 이 땅에 민족의 향취 한껏 차넘치게 하려는 그의 숭고한 뜻을 새겨수록 그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때부터 김봉화녀성은 조선옷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옷재단기술과 재봉기술을 연마하는것은 험치 않았지만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넉넉기상을 조선옷과 더불어 펼쳐갈 일념으로 이악하게 련마해나갔다. 그 나날속에는 조선치마저고리를 만드는 데서 막히는데가 없는 뛰어난 기술을 소유할수 있었다.

그가 만든 조선옷들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단정하며 활동에 편리할뿐아니라 민족적감정과 시대적미감이 꼭 맞아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하기에 그가 만든 우아하고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나서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다며 보는 사람마다 부러움을 금할수 없어 한다.

우리와 만난 김봉화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옷은 우리 민족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민족옷에 대한 긍지를 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조선치마저고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옷차림문화발전을 위해 숨은 노력을 바쳐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기에 이 땅위에 주제성, 민족성이 나날이 활짝 꽃피어나고 있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홍범식



물라보게 변모된 만경대유희장

《와-와》, 《하하하》 하늘에서는 유희기구를 타고 공중락하 또는 회전하는 사람들의 랑만에 넘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땅에서는 거꾸로 섰다 바로 섰다 하는 그 모양이 너무 우스워 구경하는 사람들이 배가 끊어져라 웃음을 터친다.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 얼마전에 훌륭하게 개진보수된 만경대유희장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유희장에는 고난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있었다. 유희시설도 오래되었고 구내의 도로와 원림상태도 좋지 않았다.

지난 5월초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도블록코사이로 돌이 난 잡풀을 한포기 하나도 뽐소 뽐소하며 유희장일군들에게 일터에 대한 예찰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랑심이 부족하다고 질책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유희장을 새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속에 남

아있는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세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수개월만에 유희장은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훌륭히 개진보수되었다.

만경대유희장관리소 지배인 원광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유희기구들만 새것처럼 도색을 하고 기대들을 원만히 동작하도록 보수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도로들과 걸음길들은 아스팔트와 색보도블록으로 번듯하게 포장되고 방대한 면적의 록지구간에는 새 품종의 잔디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구색이 맞게 심어져서 사람마다 여기가 정말 몇 달전의 유희장이 맞다고고 이야기들하며 흥분하고 있다. 어제날의 분수터가 화려한 꽃밭으로 변모된것도 놀라웠지만 물놀이할 마음껏 즐기며 모래배구와 풍구도 할수 있게 완전히 때뵈이한 물놀이장을 보면서는 경탄을 금치 못해한다. 오락설비들을 현대적인것으로 고쳐서 갖춘

리도록 하시려 현지지도길을 견고결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다시 흥성하게 된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김봉화녀성(왼쪽)



